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배포일자	2022년 9월 5일(월) 총 3매	
담당 부서	국제평화협력 담당관	담당자	• 구미국제기구팀장 박서현 ☎440-3241 • 담당자 윤선민 ☎440-324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N APCICT,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아태지역으로
- 7일까지, 「Frontier ICT 프로그램 출시 기념행사」 -
-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 최첨단 기술 아태지역 공무원 대상 교육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송도 오라카이 호텔에서 UN 아시아 태평양 정보통신교육원(UN APCICT, 원장 고기영) 「Frontier ICT 프로그램 출시(Launching)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UN 아태정보통신교육원은 인천시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으로 국회의 비준을 통해 UN ESCAP 회원국 만장일치로 2006년 대한민국에 설치된 국내최초의 유엔 산하기구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간 정보격차 해소와 인력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번 행사는 신규 프로그램인 「Frontier ICT 프로그램」의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프로그램은 개도국 공무원 및 정책입안자들을 대상으로 개도국에 필요한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등 최첨단 ICT 기술관련 정책 사례 및 방향을 다루고 있다. 교육원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지난해 말 KAIST의

김숙경 교수팀과 관련 계약을 맺은 바 있다.

교육원은 3일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국내외 공무원과 국제기구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이번에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첫날인 5일에는 카베 자헤디(Kaveh Zahedi) UN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사무차장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천시, 월드뱅크를 비롯한 국제기구, 한국주재 외국공관의 대표들과 아태지역국가 ICT분야 중앙정부 및 인천시 공무원 등 20여 개국 70여명이 참석했다. 오는 6일과 7일 양일에 걸쳐,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등 최첨단 ICT 기술관련과 관련된 선진국의 정책과 사례를 교육할 예정이다.

UN APCICT 고기영 원장은 “코로나 사태는 인류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정보통신기술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우리 교육원은 기구의 설립 취지를 살려 최첨단 ICT분야 교육을 통해 아태지역 개도국의 경제사회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제학 시 국제관계대사는 “우리 시는 주요 공약인 「스마트도시 발전방안」 수립을 통해 디지털트윈 행정 및 XR메타버스 프로젝트, 도시통합운영센터 추진 등 최신 ICT기술을 활용한 시민체감형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프로그램 개발을 기념해 앞으로도 UN APCICT와 함께 아태지역국가 ICT분야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UN 아태정보통신교육원(UN APCICT)은 2006년 설립된 이후로 현재까지 25건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아태지역국가 중앙공무원 및 국제기구 직원 등 1만1천여 명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교육을 실시해 왔다.

※ 관련 사진은 행사(10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